

경제학의 시각에서 본 환경문제

李正典
(서울대 교수)

I. 환경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

흔히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오염되며 어떻게 오염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잘 단속하며 오염물질을 잘 처리해주면 끝나는 문제, 그러므로 자연과학이나 보건위생, 또는 법과 관련된 문제 쪽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버리기 쉽상이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화하고 고질화하

“
경제학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이란 환경을 오염물질배출이라는 특정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자, 환경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사회를 지배해온 어떤 큰 사조에 결부된 뿌리깊은 문제이고, 따라서 환경문제는 그 큰 사조와 연결해서 이해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똑 같은 환경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너무나도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고 때로는 놀라게 된다. 환경 내지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 중에서 가장 흔히 인용되

는 견해로는 소위 기술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는 기본적으로 대자연을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파괴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지만 우리 인간은 이 부작용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기술중심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는 대자연의 한 구성분자로서의 인간과 대자연과의 유기적인밀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야하며 그러므로써 인간과 대자연과의 조화를 향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을 통한 인간과 대자연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로부터의 인간과 자연과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계급론에 입각하여 환경문제를 자본주의라는 특정 생산양태와 결부된 체제상의 모순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며, 따라서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술중심주의는 서구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지배계층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중심주의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사상이어서 관료계층, 특히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경제관료들이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시각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중심주의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중심주의는 인류가 달성한 고도의 기술과 물질적 소비수준을 인류사회의 진

보를 재는 잣대로 삼으면서, 이 진보는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서 이를 경제원칙에 따라 잘 응용하므로써 달성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곧 진보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이 기술중심주의에서는 인류사회의 진보란 미명 아래 인간의 대자연에 대한 지배,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대자연에 대한 착취가 정당화된다. 그렇다고 기술중심주의가 환경오염문제를 무시하거나 또는 환경오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중심주의 역시 환경이라는 인간의 보금자리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을 주장한다. 단지, 기술중심주의는 환경의 보존 보다는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더 크게 강조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린 화이트(Lynn White)는 이 기술중심주의의 뿌리를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찾고 있음에 반해서 데이빗 페퍼는 16세기 부터 18세기에 걸쳐 전개된 과학혁명에서 기술중심주의가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데이빗 페퍼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획기적인 과학관이 기술중심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자연을 시계에 비유하면서 마치 기계의 움직임을 설명하듯이 몇개의 수학방정식으로 자연의 움직임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할수 있다고 한 뉴턴의 기계론적 과학관이 그 첫째이고, 물질은 무한히 분해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물리·화학적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물질을 철저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 데칼트의 분석적 사고 방식이 그 둘째요, 그리고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밝혀내 응용하는 것, 즉 행동으로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베이컨의 과학관이 그 셋째이다.

II. 주류경제학의 환경관

기술중심주의는 과학혁명과 더불어 태동한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발전한 사상이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또한 동시에 과학혁명의 밑거름이 된 위의 세 가지 과학관을 가장 충실히 따른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신고전이론(neoclassical theory)을 주축으로 한 소위 주류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다.

“
주류경제학의 환경문제에 대해 제시하는 대책이란 간단하다. 즉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다.”

“
뉴턴의 기계론적 과학관은 자연 뿐 아니라 인간사회도 기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낳았다. 즉 사회현상에도 기계론적 인과법칙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 인과법칙을 밝혀내서 이용함으로써 인간사회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개조해나갈 수 있다는 소위 사회공학적 사고방식이 주류경제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관측되는 경제현상은 실로 무수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되었겠지만, 이 들은 다시 중요한 몇 가지원인으로 압축될 수 있고 또 예측될 수 있다는 데카르트식 분석적 사고방식 역시 주류경제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주류경제학의 가치관은 인간중심의 가치관이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이 최적으로 보는 상태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최대한 충족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이 이용되는 상태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자연 또는 환경이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이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방식에서 인간의 욕망이 먼저이고 환경은 그 다음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입장은 다분히 기능주의적이다.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주류경제학은 환경문제를 시장기구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시장기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준다면, 주류경제학이 생각하는 환경문제는 사라진다. 주류경제학이 생각하는 시장기구의 으뜸가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케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지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경제문제란 어떠한 재화들을, 얼마 만큼씩,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고

분배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대답은 뻔하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들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씩, 값싸고 질 좋게 생산해서, 가장 많이 원하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분배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각종 재화의 생산에 배분하는 것이 곧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 것이다. 이 같이 말은 쉽지만 실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대답은 시장기구가 이들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대답은 시장기구가 이들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우선 시장에서는 어떠한 재화들을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만 생산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시장기구 아래에서는 망하게 되어 있다. 얼마 만큼씩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도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씩만 생산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시장이란 경쟁의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값싸고 질 좋게 생산하는 생산자들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생산자들은 자연도태된다.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재화를 많이 원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지불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산자들은 재화를 가장 많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은 대체로 보아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원활하게 작동하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시장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가 응분의 대가를 주고 받는 가운데 이루어짐을 전제하기 때문인데, 소유권이 분명한 재화나 자원을 사거나 이용할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됨이 상례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분명치 못한 것들 또는 공유재들은 아무나 함부로 마구 이용하기 때문에 금방 훼손되는 경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게 된다.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이란 환경을 오염물 질배출이라는 특정 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란 공해업체가 우리의 대기를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일반시민들이 이 대기를 호흡하는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해업체가 환경을 오염물질배출 용도로 과도하게 쓰는 이유는 그 환경의 다른 용도에 미칠 지장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해업체는 '다른 용도에 미칠 지장'이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를 무시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무시된 제3자에 미친 효과를 경제학에서는 흔히 外部效果라고 부른다. 이때의 '외부'란 그 효과를 발생시킨 경제주체의 경제적 수지계산 '밖'에 있다는 의미에서의 외부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외부효과란 정상적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라는 현상도 주류경제학에서는 일종의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된다.

III. 해결책

환경문제를 외부효과로 보는 주류경제학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는 대책이란 원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간단하다. 즉,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치 쌀이나 옷에 가격을 매겨서 유통시키듯이 환경에도 적정가격을 붙여서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 가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물론 가격만 붙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응분의 가격을 치르도록 효과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가 이런 취지의 법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0년전 부터 공

해배출부과금제도가 실시되어 오고있다.

원래 공해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의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해서 일정요율로 일종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출량에 대해서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고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물을 타서 낮은 농도가 되도록 희석하는 방법으로 배출부과금을 모면하는 탈법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과금요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공해업체는 비싼 돈을 들여서 오염물질을 자가처리하느니 공공연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배출부과금을 내는 것이 더 싸게먹힌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출부과금제도는 우리 환경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가격을 공해업체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배출부과금제도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환경에 가격을 붙이는 제도는 오염물질배출을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면, 그런 제도는 결국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를 팔아먹는, 말도 되지 않는 제도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중요한 것은 환경에 가격을 붙이는 제도는 대체로 장기에 걸쳐 서서히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이미 오염될대로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판에

한가롭게 배출부과금제도의 효과나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기도 하다. 이미 더럽혀진 환경을 복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환경개선 투자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국이다. 주류경제학은 환경투자비 재원의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빠듯한 정부예산, 기업예산, 그리고 가계예산에서 어떻게 그런 환경개선투자비를 무리없이 짜낼 것인가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풀어나가야 할 한가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로 주류경제학의 입장만을 살펴보았는데, 주류경제학만이 경제학의 전부가 아님은 물론이다. 환경문제에 관하여 마르크스경제학의 주장도 상당히 유력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는 마르크스경제학의 주장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본가의 끊임없는 이윤추구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유리, 인간과 자연 모두 상품으로 전락하는 현상, 끊임없는 확대재생산의 필요성과 맞물린 끊임없는 수요의 창출내지는 하찮은 욕망의 자극, 이에 뇌동하여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는 소비풍조 등 마르크스경제학이 꼽는 자본주의의 이런 병리현상들을 안고 있는 한 우리 인류가 과연 이 하나 밖에 없는 지구에서 과연 얼마나 오래동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직 하다. ♠

□ 도서안내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0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펴냄 -